

“부실처리 도 댔어요” 시중은행 건전성 ‘역대최고’

지난해 말 부실채권비율 0.97%
전년 말 1.19%서 0.22%p 하락
잔액 18.2조... 3년새 40% 감소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됐다. 최근 체감 경기는 악화됐지만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한 데다 구조조정 마무리와 저금리가 맞물렸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97%다. 전년 말 1.19% 대비 0.22%포인트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0%대를 기록했다.

부실채권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 12.9%로 치솟으며, 부실채권잔액도 61조원에 달했다. 이후 2000년 말 8.00%, 2001년 말 3.42%, 2002년 말 2.33%, 2003년 말 2.63%, 2004년 말 1.90%로 점차 개선됐으며, 2006년 말에는 0.84%로 처음으로

0%대에 진입했다.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도입된 이후 사상 최저치였다.

2005년 말에는 조선업(12.92%), 건설업(4.35%) 등 취약업종의 부실로 부실채권비율이 1.71%로 높아졌지만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2016년 1.42%, 2017년

1.19%로 하향 안정화됐다.

부실채권잔액 역시 2015년 말 30조원에서 2018년말 18조2000억원으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시중은행만 놓고 보면 건전성 지표로는 최고치였던 2006년보다도 개선됐다.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9%로 전년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 2006년 말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9%였다.

구조조정의 역할을 떠맡았던 특수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1.70%로 다소 높으며, 지방은행이 1.03%다.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건전성 우려가 컸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아직 0.20%에 불과한 수준이다.

IBK투자증권 김은갑 연구원은 “3년 연속으로 부실채권 정리규모가 신규 발생

규모를 상회하면서 부실채권잔액이 빠르게 감소했다”며 “대규모 정리를 통해 부실채권을 감소시키는 상황이 아니며, 정리규모도 점차 안정화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자산건전성도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경기부진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향후 금리상승이 제한적인데다 연체율 추이 등이 나쁘지 않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대기업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의 개선폭이 컸고, 중소기업대출과 신용카드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소폭 개선됐다”며 “전체 부실채권비율은 안정적 수준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은행충당금비용도 우려할 만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김용범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장기소액연체’ 지원 1년간 11.7만명 신청

금융위, 면제절차 상반기 완료키로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채무면제 제도에 1년간 11만7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채권 매입·면제 절차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는 파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사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업계의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원 성과를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구 상환미약정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상환능력을 심사해 통과한 채무자 58만6000명의 채무를 면제해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

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에는 1년간 11만7000명이 신청했고, 심사를 마친 신청자 중 4만1000명이 채무를 면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이전에 실시한 지원제도보다 신청률이 높았다”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7만6000명은 심사와 채권 매입, 면제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는 상시 채무관리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신청했지만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실시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는 오는 6월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에 지원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김태오 DGB회장, 文 대통령 신남방순방 동행

캄보디아 진출 모범사례 꼽혀 ‘이례적’

6박7일간 경제사절단 자격 참여
DGB특수은행 성공사례 등 소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지방금융 그룹 중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출장길에 동행한다. 문 대통령의 대표 대외경제정책인 ‘신남방 정책’이 금융기관의 신남방 영역확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DGB금융그룹의 해외진출 영역도 확대될 모양새다.

11일 DGB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은 10일부터 6박 7일동안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참여한다. 김 회장은 12~15일 개별일정을 소화하고 15일 문대통령이 주관하는 캄보디아 비즈니스포럼에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는 지난해 1월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캄캐피탈 은행을 인수해 만든 ‘DGB특수은행’의 성공사례가 소개된다. DGB특수은행은 국내 금융 기관 중 캄보디아에 진출한 유일한 여신(대출)전문기관으로 현지화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한국식 금융시스템이 현지화에 성공한 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성장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어떻게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는지 소개할 예정”이라며 “현지사정에 밝은 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은행장을 맡는 등 영업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DGB금융그룹 전경

〈DGB금융그룹 동남아 진출 현황〉

시기	내용
DGB 캐피탈	2016.12 라오스 현지법인 DLLC (DGB Lao Leasing Company) 설립
	설립예정 미얀마 소매대출회사(MFI)
DGB 대구은행	2016.07 베트남 호찌민 사무실 지점 전환허가신청
	2018.12 캄보디아 캄캐피탈(CamCapital) 은행인수완료

/자료=DGB금융그룹

앞서 DGB금융은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로 이어지는 ‘인도차이나 금융벨트’를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캄보디아를 해외진출을 주요거점으로 만들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영업력을 키울 방침이다.

현재 DGB금융은 계열사를 통해 중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영업을 펼치고 있다. DGB캐피탈은 지난 2016년 라오스에 해외법인 DGB라오리싱(DLLC)을 운영하고 있다. DGB대구은행도 중국 상하이 지점과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에 이어 지난해 캄보디아 캄캐피탈 은행을 인수했다. 특히 인수 전 4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던 캄보디아 캄캐피탈 은행은 인수 후 1년만에 7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DGB금융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를 웃돌고 있는 신흥국인데다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어 환율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캄보디아 캄캐피탈 은행

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차례로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심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해외은행의 현지진출 절차가 까다로우 금융당국의 인가가 늦어지는 만큼 김 회장이 직접 관계자와 교류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12일 미얀마를 방문해 소매대출회사 설립을 논의하고, 13일 캄보디아로 이동해 대출업무(여신)로 제한된 특수은행을 예금(수신)업무까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DGB금융 관계자는 “캄보디아 캄캐피탈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여신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영업을 조금씩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베트남 사무실의 경우 지점인가가 늦어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인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기업 금융지원 ‘우리큐브론-X’

우리은행은 스마트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 ‘우리큐브론(CUBE)론-X’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 CUBE론-X는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표 상품인 ‘우리CUBE론’을 리모델링한 상품으로, 기업의 고용현황·기술력·담보물 등 다양한 요소를 큐브(CUBE)처럼 조합하여 최적의 금리와 대출한도를 제공한다.

우리 CUBE론-X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직전연도 50만불 이상의 수출입실

적을 달성한 기업에 대한 우대를 포함해, 기업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자동체 실적·상시근로자 수·기술금융 여부 등에 따라 기본 산출금리 대비 1.5%~2.0% 수준의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지식산업센터, 스마트공장, 사무실 등 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나 산업단지내 담보물을 취득하는 시설대출의 경우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조건도 추가됐다.

/홍민영 기자 hong93@

하나금융투자 ‘골드 WM’ 등 91명 임명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8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종합자산관리의 선봉에 서게 될 ‘GOLD WM’ 50명과 ‘VIP WM’ 41명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WM’은 사내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하나금융투자 대표 종합자산관리 전담직원이다. KEB하나은행 PB와 함께 고객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자산배분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물론 은행-증권의 차별화된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Gold WM’은 KEB하나은행 Gold CI

ub과 거점 VIP Club 영업점에 매칭되어 있으며, ‘VIP WM’은 KEB하나은행 VIP Club 및 리테일 영업점과 호흡을 맞춘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는 축하를 통해 “2018년은 ‘One WM’ 전략 하에 자산관리 영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한 해였다”며, “작년에 다져놓은 기반에 WM그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오늘 행사에 참석한 WM들의 활약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승호 하나금융투자 마케팅본부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앞줄 가운데)가 지난 8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GOLD WM’과 ‘VIP WM’ 임명식을 갖고, 새로 임명된 WM 및 회사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처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 공급과 종합자산관리 전문인력 육성으로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